

학습자 활동 중심의 언어사용 기능 신장 방안

김 태 곤*

I. 서 론

그 동안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학부모들의 교육 열기로 자녀들의 교육을 제일의 과업으로 삼아 열악한 부존자원 빈국에서 이나마 국가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교육 열기만으로는 교육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세상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게 되었다.

각 분야에서 다양화된 이 사회는 만물 지식인보다는 전문화된 지식인, 기능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이 대중화된 이 시대에는 전통적인 교육방법인 교사 중심의 일제수업, 지식주입식의 교수방법으로는 모든 학생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많은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따분하고 지루해 하며 수업 내용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수업 방법으로는 상위 일부 학생만이 학업에 의미를 찾고 적응하고 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나 학원에서 들러리 신세로 있으면서 자기가 흥미를 갖고 있는 일이나 머리 속에 떠올리며 빨리 수업이 끝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옛날처럼 교사나 부모가 학생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공부하라고 무조건 지시하고 굳은 인상을 보인다고 순순히 따라올 학생들이 아니다.

세상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을 가르치는 일인데 그 중에서도 중학생들인 것 같다. 초등학생들은 아직 어려서인지 교사나 부모의 말에 거역하지 못하고, 고등학생들은 조금 머리가 성숙되어 자기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인생관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학생인 경우 덩치는 커져서 교사나 부모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반항하면서, 미래에 대한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가지지 못하여 학업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많은 나라에서 교육을 국가 발전 운명의 기본으로 삼고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문제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우리 나라도 교육개혁을 통한 지식 기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 각 분야에서 노력 중이고, 초·중등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생들을 인격체로 보고 그들의 적성과 흥미와 능력을 고려하여, 시대 흐름에 맞는 제7차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대 교육은 전통적인 주입식 위주의 교육으로는 개성화되고 다양화된 학생들을 만족시키며 교육시킬 수 없다.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그들이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혹자는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법을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라. 좋아하면 집중하기 마련이고, 일을 즐기고 성취감을 맛보는 사이에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했다. 여기에 교육도 대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7차 교육과정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러한 정신을 반영했다고 보겠다. 제7차 교육과정은 큰 특징인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학습자 활동 중심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친 교육철학에 대하여 알아보고, 중학생에 적합한 언어사용 능력의 증대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II. 구성주의 철학과 학습자 중심 교육

요즈음 학교 안팎에서는 구성주의, 열린교육, 학습자 중심 교육, 총체적 언어 교육(whole language), 수행평가 등의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말들은 전통적인 교육방법인 객관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여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철학, 사회학, 인류학, 교육학 등에서 널리 논의되어 왔다. 지식을 절대적인 것, 인식자와 분리된 것, 외적 실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지식 이론과는 달리 思考하는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아는 것을 구성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¹⁾ 흔히들 현대 사회를 무한 경쟁 사회, 국경 없는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대상

1) 이명숙(1998), “구성주의의 심리학적 근거”, 「구성주의 교육학」, 교육과학사, p.35.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창의성 있고 유연성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전통적인 교육 방법인 단순 지식의 암기식 위주로 하는 교육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구성주의 교육관은 학습의 본질과 학습의 과정에 대한 전통적 객관주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즉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별로 쓸모 없고 효용 가치가 적은 단순 지식으로부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주어 실용화할 수 있는 사고와 기능으로, 획일적 환경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학습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교사 중심(공급자 중심)의 교수·학습관도 구성의 주체인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단순히 무게 중심만 학습자에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맥락 속에서 능동적 활동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전통적 교수·학습관과 구성주의 교수·학습관을 비교해 보자.

전통적인 객관주의 교수·학습관은 학습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로 보고 학습자를 단순히 외부의 환경적 자극에 따라 반응하는 수동적인 학습자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 목표를 학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자극과 반응의 결과에 대한 강화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래서 교수·학습의 주도권은 교사에게 있고, 교사는 많은 지식의 전달자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외현적 수업전략을 동원한다. 수업평가 역시 객관식 평가 위주로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구성주의 교수·학습관은 주관주의 인식론에 근거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이 위치한 맥락에서 능동적인 경험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지식을 구성한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맥락에 적합한 의미를 구성하고 실재를 구성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고 필요에 따라 세상을 의도한 대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창의성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은 지식의 단순한 획득과 재생산 과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구성적 과정이며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과정으로 본다. 다시 말해,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이 곧 학습으로 본다. 그래서 교수·학습의 중심은 당연히 구성의 주체인 학습자에게 있다고 본다. 평가 역시 수행평가(performance assessment), 서류철평가(portfolio assessment), 참평가(authentic assess-

ment) 등과 같이 실제 과제를 수행하는 학습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한다.²⁾

이와 같은 구성주의 교육관은 지식은 경험을 통해 구성되며 학습은 능동적 과정으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의미를 개발한다. 자기의 배경지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어떠한 지식을 가르쳐 주었을 때 실감이나 이해가 잘 안 된다. 또 자기가 체험한 지식은 확실하고 실감이 난다. 가령 자동차 사고를 내거나 운전 시 속도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게 되면 확실하게 정신적으로 터득되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 된다. 그래서 수업료를 냈다고 한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되면 산전수전 다 겪었다. 또는 고상하게 표현하여 경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구성주의 교육관은 이러한 체험화에 바탕을 둔 주제적인 지식의 구성에 있다. 주입식 교육을 받은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부모에 의존적이라면, 구성주의 교육을 받은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장래를 개척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구성주의적 교수법에 대하여 많은 교사들은 懷疑를 가질 수도 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 교수기법에 깊이 빠져 있어 기존 교수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 또 전통적 객관주의 교수법이 학생들에게 효력이 있다고 본다. 교사들은 구성주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도록 연수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Brooks & Brooks(1993)는 구성주의 교육의 정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 ① 교사를 위한 직전 교육과 재직 중 교육을 구성주의 원칙들과 실행들로 구조화하라.
- ② 모든 표준화된 시험을 제거하고 평가를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라.
- ③ 교과서나 학습서보다는 교사의 전문성 계발에 자원을 더욱 집중시켜라.
- ④ 문자와 숫자에 의한 평점을 제거하라.
- ⑤ 인간 발달의 원칙에 초점을 맞춘 학교 단위의 연구 집단들을 형성하라.
- ⑥ 행정가들과 학교위원회 위원들을 위하여 교수 학습에 대한 세미나를 매년 필수적으로 실시하라.³⁾

2) 조영남(1998), "구성주의 교수·학습", 「구성주의 교육학」, 교육과학사. pp. 153-154.

3) 추병완·최근순 역(1999), 「구성주의 교수·학습론」, 백의, pp. 167-174.

Ⅲ. 학습자 중심 교육과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주의적 교육이론의 배경을 뒤에 업고 학습자 중심 교육에 걸맞은 교육을 시행하고자 말도 많은 제7차 교육과정이 등장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이 지금까지의 교육과정과 다른 점은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형 교육과정의 도입이라고 보겠다. 이러한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대하여 일부 교원 단체와 교육부 사이에는 상당히 대립하며 의견이 맞서 있다. 한쪽에서는 이 교육과정이 시행되기에는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점차 개선하면서 노력하면 성공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기존의 관습이나 교육방법에 젖어 있는 교사들로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방법을 바꾼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으나, 정해진 길이 옳다고 믿음이 가면 제도를 이해하고 교육 방법을 바꾸려는 노력을 경주하여 올바른 교육 방법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평준화 정책에 의해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상태와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교육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들을 돕는 길은 학생들의 능력에 맞고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교실 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도록 하며,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습자 중심의 열린교육, 즉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창의성 신장과 인성 교육 강화는 매우 이상적인 교육 방법이지만 하나, 현행 교육과정의 이상적인 내용을 중학생에게 적용시키기에는 무리한 면이 있다. 중학생인 경우, 상위 20% 정도만 제외하고는 아직 자기 가치관이나 장래에 대한 인생관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또 교육환경이 극도로 유희적이고 흥미 위주의 PC방, 만화방, TV 만화 등 학생들을 유희하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중학생에게는 어느 정도 이전의 교육 방법, 즉 교사가 이끌어가야 하고, 때로는 지식 위주의 주입식 방법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고전적인 교육 방법은 필요에 따른 소량에 그쳐야 한다.

다행히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는 이전의 교과서에 비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본문 제재의 내용을 줄이고, 읽기 전 활동(‘읽기

전에'), 읽은 후 활동('학습활동')을 강화하여 사고력과 창의성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했다. 특히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생활과 관련 있는 질문에 신중히 생각하며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논란이 많은 수준별 교육도 국어과에서는 심화·보충형으로 하여 학생들의 학습 취향에 따라 선택하도록 했다. 그리고 교사가 '학습활동'란의 많은 문제를 모두 다룰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다. 교과서는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지만, 교사는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재량껏, 흥미를 유발하며 교육시킬 수 있는 교재를 찾아내어,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교과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어야 한다. 가령,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거두절미한 소설들이 실려 있는데 이는 문학교육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의 소설에 대한 흥미를 반감시킨다. 의미 있고 재미있는 소설책 한 권을 선정하여 한 학기 동안 과제로 하는 것이 효과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학교 교육은 교과시간에 하나의 문제를 원리에서부터 철저히 터득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것저것 잡다한 많은 것을 외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천착하도록 한다. 결코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게 사고하면서 학교 생활을 한다. 때로는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며칠,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잡다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불과할 뿐 사고력 있는 행동으로는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북미나 유럽을 벗어난 지식에 대해 아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상식적인 지식은 많지 않아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고력 있는 행동을 한다. 그들은 실제 행동을 통해서 사회 생활을 배웠기 때문이다. 한국식과 미국식 교육의 결과에 장단점이 있겠으나 전문화되고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숙고해 봐야겠다. 일례로 미국 대학에 입학한 한국 고교 출신 학생은 1학년 때는 미국학생들보다 실력이 낮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즉 3,4학년이 되면 미국 학생들이 성적에 앞선다고 한다. 그것은 미국학생들은 중·고교에서 학업 내용이 원리를 터득하는 공부를 했지만, 한국학생들은 지식 암기식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 대학의 학업 방법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전의 국어과 교육과정이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면,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며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이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구성주의 교육철학의 영향으로 개별 학습자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전통적 교육 방법에 의해 교육받은 중학생들에게 국어시간이 어떠하냐고 물어 보면 재미없다고 대답한다. 우리는 여기서 국어교육 방법의 문제점을 느끼고 교육방법을 바꿔야 한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국어 교과서도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롭게 바꿨다. 어떤 선생님은 학생들이 국어 과목을 싫어하는 이유를 근래에 사고력과 의사소통 기능을 강조하면서 국어 교과서 내용이 재미없게 편찬된 점을 든다. 이전의 교과서는 명문 위주의 독해교육이 주로 이루어졌던 점과 비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어과 교육과정이 언어사용 능력의 신장을 강조한 점을 이해하여 국어교육 방법을 실제 위주로 바꿔야 한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보면, 각 영역의 ‘본질’, ‘원리’, ‘태도’의 각 범주와 ‘실제’ 범주의 교육 내용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지도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부터 언어사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어과 영역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국어과를 언어사용 기능 영역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도구 교과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목표를 그렇게 정했을 뿐이지 실제로 제5,6차 교육과정의 국어과 교과서를 살펴보면 언어사용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 활동중심의 교과서와는 거리가 멀었다.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의 단원을 보면 이론 중심의 내용이다. 게다가 종래 학교 현장에서 언어의 실제 활용보다는 언어에 대한 지식이나 문학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르쳐왔다. 이는 국어과의 성격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국어교육은 학생들의 언어사용 능력의 신장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언어사용 능력의 신장은 ‘실제 활동’이 동반되지 않은 이론의 습득으로는 성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수업을 지겨워한다. 여기서 우리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지향하고 있는 학습자 중심, 즉 학생활동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국어 수업은 교사에게보다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교사가 수업의 내용이나 방법이 의미 있는 것 같게 보더라도 정작 학생들이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면, 학생들은 수업에 대하여 흥미를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 의미 없는 수업이 되고 만다. 교사는 항상 자기가 무엇을 가르치느냐보다는 학생들 각자가 무엇을 배우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수업은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며 학생들 개개인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또 우리가 늘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들 삶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언어 습득과 사용도 실제적인 삶과 연결될 때 보다 더 효과적이며 자연스럽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있다. 따라서 언어사용 능력은 의사소통이라는 기본적인 필요성에 부합될 때 자연히 증진된다. 만약 국어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활동이 학생들의 실제 삶과 동떨어진 것이고 언어의 세부 지식의 습득에 초점을 둔다면, 학생들의 언어사용 능력은 신장될 수 없다. 언어는 설명을 통해 지식으로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언어사용 과정의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언어 능력이 발달한다. 마치 자동차 운전연습 없이 자동차 구조와 운전 방법의 설명만으로는 운전을 잘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언어사용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언어를 많이 사용해 보게 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IV. 총체적 언어교육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은 80년대에 두드러지게 일어난 서양의 '총체적 언어교육(whole language)'과 관련이 있다. 총체적 언어교육에서는 무엇보다 언어의 실제적인 사용을 강조하면서 학습자에 초점을 둔다. 학습자의 필요나 흥미,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암기 위주의 언어교육과는 달리 의미 있는 상황에서의 언어의 실제적 사용과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중시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더욱이 대학의 국문학과를 졸업하고도 글을 잘 쓰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현상은 학교에서 이론 중심, 지식 중심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이나 지식은 언어사용 능력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점을 시정하기 위해 우리 나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서는 글쓰기와 화법 과목 등을 신설하여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총체적 언어교육에서 강조하는 통합의 의미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각

영역의 지도가 구분하여 다루어지기보다는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는 상황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사용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중학교 교과서(1학년)를 보면 ‘국어’와 ‘생활 국어’로 분책되어 있고, ‘국어’는 ‘문학’과 ‘읽기’ 영역의 내용으로, ‘생활 국어’는 ‘말하기·듣기’, ‘쓰기’,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이유에서 분책했는지 모르겠으나 분책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전의 국어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제7차 국어과 교과서에서도 영역별 단원으로 편찬되어 있으나 이를 지도할 때에는 통합 지도가 필요하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등을 나누어 가르치려고 했던 낡은 방식을 버리고 수업시간에 조금씩이라도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읽기’ 자료를 읽은 후에 느낌을 발표하거나 토론하게 한다든지, ‘말하기·듣기’ 자료를 이용하여 글쓰기를 해볼 수 있다. 가령, ‘공중 질서’에 대한 소집단 토론, 또는 가족 토론을 한 다음 그 내용을 적게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말하기, 듣기, 쓰기, 인성 교육이 이루어진다. 중학교 ‘생활 국어’에 나오는 ‘국어 지식’ 영역은 제6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비해 학습 활동 위주로 저술되어 많이 개선되었다. 여기서도 한 시간 동안 ‘국어 지식’ 영역의 교과 내용만 다룰 것이 아니라, 문법의 원리만을 터득하게 하고 글쓰기, 말하기, 또는 읽기를 하게 하는 가운데 국어 지식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자기 나라에서 母語를 쓰는 사람은 문법을 따로 배우지 않더라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법에 맞는 말을 사용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총체적 언어교육에서 강조하는 통합의 필요성을 들면 다음과 같다.

- (1)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기능은 근본적으로 구분될 수 없다. 이들 언어의 각 기능은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지도해야 효과적이고 자연스럽다.
- (2) 언어 기능은 실제적인 사용을 통해 증진된다. 언어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언어 기능을 지도할 때는 실제적인 삶과 연결 지워야 한다.
- (3) 언어 기능은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고도로 복잡한 기능의 집합이다. 언어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곧 언어사용 능력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 언어사용 기능은 의미를 구성하고 비교, 분석, 종합, 추리, 판단하는 고도의 사고 기능이

다. 그러므로 이 기능은 단순한 지식 습득만으로는 얻어질 수 없고 의미 있는 상황에서 다양하고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 (4) 언어의 세부 단위는 실제적인 사용에 있어서 구분될 수 없다. 언어를 단어, 구, 절, 문장, 글 등으로 나누지만 단어나 구를 잘 이해한다고 해서 문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언어의 분절적인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언어사용 능력을 잘 신장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총체적 언어교육 교사들은 언어의 부분 보다는 언어의 전체를 다루고 이를 강조한다. 반면에 언어 지식 중심의 교사들은 언어의 작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의 규칙과 음운 지도에 중점을 둔다.
- (5) 언어와 다른 교과나 학습활동과 연관을 맺을 때 언어기능이 효과적으로 신장된다. 언어를 배우는 데는 그들 주위 사람들과 문화, 사회적 맥락(contexts)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⁴⁾

그리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총체적 언어교육 교사의 행동을 들면 다음과 같다.

- (1) 학생들이 배우게끔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 (2) 교사는 함부로 등급 딱지를 붙이거나 아이들을 분류하지 않는다.
- (3) 교수방법이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 (4) 교사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준다.
- (5) 교사는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운다.
- (6) 언어의 의미를 중시한다.
- (7) 언어학습을 지도할 때마다 완전한 한 문장이 최소 단위가 된다.
- (8) 교사들은 언어학습을 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 전체, 시의 전체를 놓고 이야기한다.
- (9) 교사들이 먼저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의 머리에서 지적 자산이 튀어나오도록 자극을 준다.
- (10) 추상적인 것을 피하고 꼭 예를 제시한다.
- (11) 교사는 학습자의 모습을 하고 학생과 함께 몸소 읽기, 쓰기를 한다.⁵⁾

4) 신헌재·이재승(1997),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박이정, pp. 17-20.

5) 하광호(1996), 「영어의 바다에 헤엄쳐라」, 에디터, p. 303.

V. 의미 있는 언어학습의 경험

1. 말하기 · 듣기

어떤 조사에 의하면, 매일 의사소통 시간 중 말하기 · 듣기가 75%(듣기 45%, 말하기 30%)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처럼 사람은 음성언어를 통하여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주고받으며 성숙된 인간으로 발전한다. 요즘은 스피치 강좌에 관심들이 많다고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 대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 입학 시험이나 취직 시험에서 면접시험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말하기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중학교 '생활 국어' 교과서를 보면, 말하기·듣기 단원이 제6차 때 국어 교과서에 비하여 '활동' 위주로 되어 있어 실제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편찬되었다. 말하기의 능력은 사람이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 신장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들어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 수업이 꾸며져야 한다. 중학교 '생활 국어' 교과서의 활동란 내용을 보면 너무 교육적인 내용이나 말하기·듣기 이론을 발표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말하기를 어려워하고 흥미를 잃게 되기가 쉽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할 적에 학생들이 관심 있고 좋아하는 화제를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적극성을 띠게 한다. 영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뉴스 텔링(News telling)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어린이들이 자기 주위에서 일어난 소식을 발표하는 시간이라고 한다. 이런 발표를 통해 말하기 능력의 신장을 가져온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국어과 시간에 학생들에게 어렵지 않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 말을 잘할 수 있는 국민으로 키워냈으면 한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무작정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의미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언어를 많이 사용해 보도록 지도해야 한다.

말하기 지도에서는 소집단(3~6명) 활동이 효과가 있다. 학생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집단을 구성하는데, 대집단보다는 소집단으로 하여

야 말할 적에 덜 긴장하며 부끄러움을 줄일 수 있고,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소집단 활동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자주 화자가 되기 때문에 주인공 의식을 가져 지루해 하지 않으면서 대화나 토론을 할 수 있다. 소집단 토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화자는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이를 구체화하며 수정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보다 더 창조적으로 개발해 갈 수 있다. 즉 소집단 활동으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사고를 개발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소집단 활동이 익숙해지면 점차 대집단 활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게 한다.

한편, 말할 적에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와 습관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다. 말하기의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정중 어법이요, 듣기는 상대의 말을 적극적으로 집중하여 들어 '깨닫기'(聽解)에 이르러야 한다. 청자는 상대방이 말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오해를 하게 된다.⁶⁾ 그러므로 말하기·듣기 교육에서, 대화할 적에 언어 예절을 지키도록 하고, 토론 활동 중 녹음이나 녹화하게 하여 이것을 이용하여 참여자들 사이의 서로 평가나 자기 평가를 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바람직한 대화와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를 구별하게 하고, 말하기나 듣기의 잘못된 태도가 습관화되어 있으면 바로 잡게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의 소감을 글로 쓰게 하면, 말하기와 글쓰기의 차이점을 알게 되며 글쓰기 능력도 향상된다.

2. 읽기

초등학교 때에는 책을 많이 읽던 학생도 중학생이 되어서는 읽을 만한 책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권장도서니 필독도서니 하고 제시되지만 그런 유형의 책들은 중학생들에게 흥미를 끌지 못하고 그들이 읽기에는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다. 게다가 학생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 획일적으로 주어진 책은 제대로 읽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일반 독서 시장의 풍토에 대해서도 관련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문학을 예로 들면, 흥미 위주의 독자 입맛에 맞추기 위해 문학의 소재가 달라지고 패션화한다. 그래서 날림으로 제작된 순정만화

6) 최현섭 외(2000:188)는 듣기의 유형을 '들리기', '듣기', '깨닫기'로 나뉘는데, 깨닫기(auding)는 듣기 과정의 처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또 여기에 청자 자신의 정의적인 반응까지 곁들이는 과정을 의미한다.

수준을 넘지 못하는 소설만 팔린다고 개탄한다. 독자들의 취향이 곧바로 문학의 소재와 형식, 어법, 상상력에 막강한 지배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학의 질이 하향 평준화했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선택했을 때, 그 책을 더 흥미 있게 읽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의미 있는 것을 배우게 된다. 요즘 중학생들이 많이 읽는 책은 컴퓨터 게임에 관한 책이나 소위 환타지 소설, 무협지 등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좀더 다양한 종류의 책,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을 읽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사가 어떤 책을 강조해도 학생들이 이를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억지로 읽는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기 쉽다. 이럴 경우 소집단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보다 나은 책을 읽도록 토론을 시켜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독서는 언어사용 능력의 신장과 사회 생활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독서를 통해 어휘력이 신장되며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저절로 파악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어휘는 사전을 통해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대화나 독서를 통한 문맥에서 배웠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읽기의 유용성을 깨닫고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해야 한다. 사람이 책을 제대로 읽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교사들이 보기에 중학생들이 수준 낮은 책을 즐겨 읽을지라도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성장함에 따라 자연히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 읽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적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자연히 그에 맞는 독서에서만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 기능을 신장시키는 방법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읽은 것에 대해 토론하게 하면 효과적이다. 여기서 토론에 관한 모든 것을 학생들이 정하도록 하면 토론의 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다. 짝과의 토론이나 소집단 토론은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이 읽은 것에 대해 솔직하게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 토론을 통해 학생 각자의 느낌이나 각자가 깨달은 것을 비교해 보는 것은 뜻깊은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느낌이나 이해가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3. 쓰기

쓰기는 머리 속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읽기가 이해력을 개

발하는 데 효과 있다면, 쓰기는 구성력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이다. 쓰기 지도는 종전에는 완성된 글에 대해 평가하는 결과 중심의 평가였다면, 요즘은 과정 중심의 쓰기 지도로 옮겨가고 있다. 그런데 글쓰기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글을 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글을 쓰고자 하는 마음은 그 글을 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생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학생들은 그 글을 쓸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지 않은 채 교사의 지시에 의해 글을 쓰게 된다. 이럴 경우 학생들은 억지로 글을 쓰게 되어 글쓰는 것 자체를 싫어하거나 매우 부담스러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글을 쓸 만한 충분한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으로, 쓰기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견을 나누는 활동 자체를 하나의 쓰기 활동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글을 쓰는 사람은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는 의사소통적 쓰기 기능 방법이 효과적이다. 여기서 우리가 지도해 볼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학생들이 어떤 대상이나 주제에 대하여 각자 글을 써서 돌려보게 하는 것이다. 이 때의 글쓰는 대상이나 주제는 학생들 주위에서 쉽게 접해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그들이 쓴 글은 서로 돌려서 또는 문집을 만들어서 급우들이 읽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점차 글쓰기에 흥미를 갖게 되고 커다란 만족감을 얻어 쓰기를 어렵지 않게 생각하며 생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할 것이다.

다른 방법은, 글쓰기 하면 보통 혼자 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럿이 모여 한 편의 글을 쓰게 하는 것이다. 소집단을 구성한 후 이들 구성원들이 주제를 고르고 함께 합심하여 한 편의 글을 완성하게 한다.⁷⁾ 이른바 협동적인 글쓰기이다. 소풍이나 엠터의 모임에 가서 집단별로 장기자랑 대회를 하듯이, 소집단 별로 어떤 대상이나 주제에 대하여 글을 써서 차례로 발표하게 하거나 희곡을 만들어 역할극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글쓰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글을 쓰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고, 학생들이 함께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수 있으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글쓰기에 흥미를 갖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 특히 이러한 협동적인 글쓰기

7) 신헌재·이재승(1997), 전제서, p.277.

와 역할극은 말하기와 듣기를 포함하는 의미 있는 언어 활동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가 있다.

VI. 국어과 평가의 문제점

우리 나라에서는 학업 평가 결과로 진학의 대부분을 결정하므로 평가(시험) 방법은 교수·학습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교사들은 앞에서 살펴본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을 알고 있어도 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교수 방법의 개선에 소극적이기도 하다.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의 평가는 요사이 유행처럼 번지는 수행평가(performance assessment)와 연결된다. 그러나 수행평가의 우수함에도 현실은 학교 현장에서 이를 확대시키지 못하고 지필평가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필평가 중에서도 선다형이나 단답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대단위의 학생을 동시에 손쉽게 평가할 수 있고 교과외의 광범위한 내용을 평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같이 등수에 민감한 나라에서는 이 방법이 객관성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사고력이나 창의성을 키우지 못하는 단순 지식을 묻거나 하나의 정답만을 요구한다. 국어과의 단순 지식은 시험만을 위해 존재하여 시험이 끝나면 잊어버려도 좋을 내용이 많으며, 하나의 정답은 인간의 사고나 감정의 다양성을 무시하여 기계로 찍어 낸 틀에 박힌 인간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학생들은 교사가 정답이라고 채점한 문제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국어 과목을 싫어하게 되는 한 요인이 된다.

또한 평가가 너무 결과 평가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언어사용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정 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 수행평가로 다루고 있는 많은 과제물의 경우도 결과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작성했는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요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교수·학습의 경향이므로 평가도 이에 맞추어 과정 중심의 평가가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VII. 결 론

요즈음 교육의 특징은 대중화되고 학생들은 개성화되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객관주의 교육 방법인 공급자 위주로 교육을 이끌어가, 교사가 교과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들은 암기하며 이해하는 교육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 방법을 시정하기 위한 일환으로 서양의 구성주의 교육철학의 영향을 받은 학습자 중심 활동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구체화하여 초·중등 학교에서 점차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학습자 활동 중심의 국어교육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교실에서 실현을 위한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인 언어사용 기능 향상과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의미 있는 언어 학습 경험 방안은 다음과 같다.

말하기 · 듣기 : 말하기의 능력은 사람이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 신장되므로 많은 학생들이 말하기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 말하기 활동 방법으로 소집단(3~6명)을 구성하여 토론 등 의견 발표를 하게 하는 것이 긴장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그리고 토론 활동 중 녹음이나 녹화하게 하여 이를 나중에 서로 평가나 자기 평가의 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읽기 : 읽기 자료는 학생들이 그들의 수준이나 관심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하여 읽게 하는 것이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책을 가까이 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읽은 것을 짝과 또는 소집단을 구성하여 토론하게 하면 각자 느낌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말하기 능력도 신장된다.

쓰기 : 글쓰기는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글을 읽을 사람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게 하는 의사소통적 글쓰기 활동을 하게 하면 효과적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쓴 글을 서로 돌려서 읽게 한다면 문집을 만들 것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게 하면 더욱 정성껏 글을 쓴다. 다른 방법으로는, 몇 명이 소집단을 구성하여 협동적 글쓰기를 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로 쓰기가 이루어져 쓰기를 싫어하는 학생도 글쓰기의 방법과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게 쓰기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 국어, 도덕, 사회」.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박수자(1998). “구성주의와 언어 학습 경험”. 「국어교육 연구」, 5. 서울대 국어교육 연구소.
- 신현재·이재승(1997).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박이정.
- 심미혜(2001). 「미국교육과 아메리칸 커피」. 솔출판사.
- 이명숙(1998). “구성주의의 심리학적 근거”. 「구성주의 교육학」. 교육과학 사.
- 이우청(1999).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방법 연구 : 6·7차 중학교 교육과정을 모델로 하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남(1998). “구성주의 교수·학습”. 「구성주의 교육학」. 교육과학사.
- 추병완·최근순 역(1999). 「구성주의 교수·학습론」. 백의.
- 최현섭 외(2000). 「국어교육학 개론」. 삼지원.
- 하광호(1996). 「영어의 바다에 헤엄쳐라」. 에디터.